“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출전 정금성·남성씨 형제

1급 시각장애인 70대 형
동생 팔목에 끈 묶고
8.5㎞ 코스 감동의 완주

“형의 눈이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볼수 있습니다.”

광주일보사 주최로 12일 화순 너릿재에서 열린 제4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시각장애인 형과 아우가 눈길을 모았다.

주인공은 정금성(70)·남성(67)씨. 이들은 친형제로 동생 남성씨는 1급 시각장애인인 형의 페이스메이커로 나섰고 금성씨는 동생에게 몸을 의지한 채 이날 8.5㎞ 부문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동생은 유도끈으로 자신의 팔목과 형의 팔목을 묶고 달렸다.

함평인 고향인 금성씨는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눈을 다쳤지만 가난 탓에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20년 전 실명했다. 남성씨는 항상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형이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함께 자취생활을 하던 동생을 보살피느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다.

남성씨는 건강을 위해 20년여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한 이래 형과 함께 뛰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는 지난 2010년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너(시각장애인 마라톤 도우미)의 모임인 해피레그에 가입해 5개월 간 유도 가이드 훈련을 시작했다.

남성씨는 결국 형을 마라톤으로 이끌었다. 처음엔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져 들었다. 2010년 마라톤(8.5~10㎞부문)을 시작한 후 벌써 50차례 이상 완주했다.

이들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3월 7일 동생의 차를 타고 함평에 있던 아버지 산소에 가던 도중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이 폐차는 되는 큰 사고 였지만 이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지난 6월까지는 병원을 오가는 신세를 져야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지난달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평소 56~58분 대의 기록을 자랑하던 이들은 다친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너릿재 마라톤에서 1시간27분 25초를 기록했다.

정금성씨는 “기록은 생각하지 않고 완주를 목표로 뛰었다”면서 “부상에서 회복된지 얼마 안돼 힘들어 포기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동생의 격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남성씨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시각장애인 마라톤교육과 마라톤 동호회 등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장애인들이 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2일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8.5km부문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정금성(오른쪽)씨와 가이드 러너로 참가한 동생 남성씨가 골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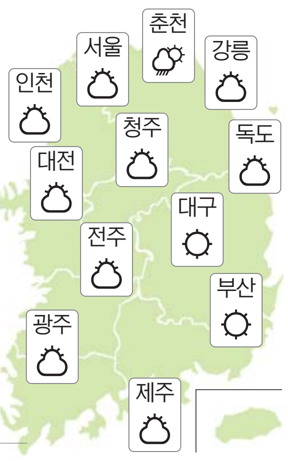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50	달뜸	07:36
해짐	19:52	달짐	20:53

태풍도 밀어낸 폭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26/35	보 성	구름많음	25/34
목 포	구름많음	27/34	순 천	구름많음	26/34
여 수	구름많음	27/33	영 광	구름많음	26/34
나 주	구름많음	26/35	진 도	구름많음	27/34
완 도	구름많음	27/33	전 주	구름많음	26/36
구 례	구름많음	25/35	군 산	구름많음	26/34
강 진	구름많음	25/34	남 원	구름많음	24/34
해 남	구름많음	26/34	흑산도	구름많음	26/32
장 성	구름많음	25/3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먼바다	동~남동	2.0~4.0	남동~남	2.0~4.0
남해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먼바다(동)	동~남동	2.0~3.0	동~남동	2.0~3.0
	먼바다(서)	동~남동	2.0~3.0	동~남동	2.0~3.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45	03:36
	20:53	15:42
여수	04:12	10:24
	16:24	22:53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6/36	26/36	25/34	25/35	25/35	25/35	25/35

“영산강 수계 농업용 댐·저수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야”

영산강·섬진강 유역 토론회
수시 방류로 수질 개선 도와야
승촌보 물 농업용수 활용 논의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영산강 수계에 있는 농업용 댐·저수지를 식수 등 생활·공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토론회’와 ‘영산강수계 통합물관리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영산강유역청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136.7㎞)에는 하천 169개와 댐·저수지 1102개가 있다. 영산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12억2500만㎥다. 이중 11억7500만㎥(95.9%)가 농업용수로, 나머지 5000만㎥(4.1%)는 식수 등 생활·공용수로 쓰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쓰이는 생활·공용수(3억8400㎥)는 대부분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 수계인 동복·주암댐에서 공급받고 있다.

환경부는 광주·담양·장성댐 등 영산강 수계의 댐 대부분이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질개선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하천 방류 의무가 없는 농업용 댐·저수지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한 뒤 수시 방류를 통해 하천과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댐들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고, 승촌·죽산보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은 5~10㎜ 비만 내려도 5분 이내에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나머지는 간이처리해 오염도가 높은 물을 광주천에 흘려보내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광주시, 전남도는 연간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물순환 구조개선, 하수처리시스템의 신속한 보완, 영산강 수계의 효율적 물이용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 관련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5일부터 출하되는 무등산수박.

15일부터 무등산수박 본격 출하…생산량 30% 가까이 줄어

광주지역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일명 푸랭이)이 오는 15일 출하된다.

광주시 북구와 무등산수박생산조합은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무등산 수박 공동직판장’에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 금곡동 산 일대 해발 300~500m 밭에서 재배하는 ‘무등산 수박’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11농가 2000통으로, 지난해 2800통에 비해 28.5% 감소했다. 가격은 8㎏짜리 2만원, 16㎏짜리 10만원, 20㎏짜리 18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구입 희망자는 금곡마을 공동판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2-266-8565) 주문도 가능하다.

/김용희 기자 kimyh@

태풍 ‘야기·‘리피’ 한반도 비켜가…폭염·가뭄 지속

제14호 태풍 ‘야기’에 이어 제15호 태풍 ‘리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폭염과 가뭄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야기’가 이날 오전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를 비켜갔다.

이어 이날 오전 3시께 괌 북쪽 810㎞ 해상에서 발생한 제15호 태풍 ‘리피’도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북상 중이나 더 발달하지 못해 14일 오전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보됐다.

리피는 14일 오전 3시께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74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복절 73돌 광주백범기념관 등 체험행사

광주시 15일 경축기념식

8·15 광복절 73돌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백범기념관과 ㈔백범문화재단은 “오는 15일 광복 제73주년을 기념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료 체험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체험행사는 국가상징물 태극기 팬시우드 만들기, 역사인물 열쇠고리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나라사랑 런닝맨’ 역사이야기, 물폭탄 던지기, 한인애국단 선서하기 등이다. 또 일본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 세계에 독립 열망을 알렸던 한인애국단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포토존도 마련한다. 행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광주백범기념관은 정치후원금품으로 조성된 백화마을의 유래를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건립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관장 이명한)은 14일부터 31일까지 8·15 기획전시 ‘동맹휴학, 학생이 일으킨 저항’전을 연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개최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